

# 제9회 한국국제냉동공조전 성료



제9회 한국국제냉동공조전(HARFKO 2007)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동안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신제품 냉동공조 제품이 선보일 예정으로 삶의 질 개선 제품등을 출시해 냉동공조 기기 생산 세계 4위, 무역흑자 26억불을 돌파할 예정이다.

냉동공조분야는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실내, 생활공간에서 누리는 공기의 품격이 삶의 질을 바꾼다' 라는 모티브아래 환경부는 지난 3월 5일자 보고서에서 수도권등 대도시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규모 문화, 상업시설 내의 실내공기 오염도 조사 및 규제에 대한 법률개정 요구가 환경관련 시민단체등에 의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로 고효율, 최적, 친환경 첨단 냉동공조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위와같이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상의 필요성으로 인해 일반 가정집 및 대규모 시설의 공기조절설비는 단순한 냉온방 기능에서 탈피해 공기의 질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지면서 첨단 공기조화 기기 및 설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세 번째로 첨단 냉동공조기술을 통한 세계적인 제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제9회 한국국제냉동공조전이 21일 오후 산업자



원부 차관, 이완근 한국냉동공조협회장과 일본, 중국, 태국, 인도, 필리핀등 외국 냉동공조협회 회장단 및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국제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등 세계 24개국, 168개사가 참여해 1300여 제품이 선보였다.

전시품으로는 일반 냉동기 및 관련 부품외에 멀티시스템 에어컨, 가스히트펌프(GHP), 지열히트펌프(GSPH), 하이드로 카본(HC)냉매, 폐열 회수형 환기시스템등의 신제품이 선보였다.

특히 국산제품으로는 COP 1.48의 고효율 터보냉동기, 대형저압냉동기, 냉매회수 정제장치가 관심을 끌었으며, 외국제품으로 자기부상 터보압축기가 주목받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냉동공조산업 생산량은 13조원을 상회해 세계 4위로 수출 36억불, 수입 10억불로 26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했으며 올해 무역흑자는 30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측인 한국냉동공조협회는 전시기간 동안 1,000 여명의 해외바이어를 포함하여 2만 4,000 여

명의 관람객과, 내수 330억원, 수출 4,000만 불의 계약 및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찬을 겸한 개막축하 리셉션에서 산업자원부는 (주)화인텍센추리 임재인 대표이사에게 부도기업인 (주)센추리를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회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꾸준한 기술개발로 우리나라 냉동공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여하였고, (주)신성엔지니어링 박대휘 대표이사에게 30년 가까이 냉동공조전문 기업에 근무하면서 많은 우수 신제품 개발로 우리나라 냉동공조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여하였으며 이외에도 7명에게 국무총리 및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